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법망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육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67호
서기 2002년 5월 1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나' 있기에 상대도 부처도 있는 것

공체의 몸 속에서 뛰어나서

문 제가 마음공부를 제대로 실천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침을 전 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선법가를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선 법가의 가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발전의 길]에서 '공체의 몸 속에서 뛰어나서'란 가사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대강 집작으로 알 뿐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싶습니다.

답 사람이 지수화풍에서 와서 지수 화풍으로 살다가 죽으면 몸통이 없는 거고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만 영원한 자기의 근본은 남아서 다시금 정자 난자를 받아서 생산이 됩니다. 그 사람의 차원이 7차원 까지 이르러야만이 이 몸은 가만 놔두고라도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벌어져서, 말하자면 블랙홀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 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물질세계의 한계도 해결해 낼 수 있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공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 쓸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길게 살 수 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진리가 길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그만큼 이르 지를 못했는데, 벌써 물질은 다 떨어지고, 아니 에너지라고 합시다. 에너지가 다 떨어 지서 빈털터리로 집이 무너지고 살 수 없다면,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 을 높여야만이 되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배가 고프는데 먹을 것이 선반 위에 놓 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키를 키 워야 그걸 꺼내 먹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 에 걸상이라도 갖다 놓고 올라서서 꺼내 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 차원을 높여야 걸상을 놓지 않고 그대 로 꺼내서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질 은 육안으로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물건을 놓고 올라서서 꺼내지만, 이것은 육안 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차 원이 높아져야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깊고 광대 하고 무변합니다. 마음이라는 근본을 없 애고서는 절대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을 확장시킬 수도 없고, 방대한 능력이 이루 어지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 내 몸 속에서 벗어나야, 공기주머니를 벗어 나야 대기관을 벗어날 수 있고, 대기관을 벗어 나야 어디든지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화해서 응신이 될 수 있고, 군사로 화 해서 대비대책을 할 수도 있고, 바다나 산, 들, 지구의 어디든, 조그만 것에서부 터 큰 것까지 어디든 놓다 알다 할 것도 없고, 길다 짧다 할 것도 없고, 크다 작다 할 것도 없고, 멀다 가깝다 할 것도 없고, 그대로 잘나잘나 용무를 정하게 할 수 있고 평등공법을 장하게 할 수 있다 이 소립 니다.

내가 '용무'라고 말할 하면 영어나 독 일말로 번역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 들을까봐 될 수 있으면 알 수 있게 하 려고 평등공법을 알 수 있습니다. '평등공법' 이라든 누구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벗어나야 전체 어디든 내 도량 아닌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닌 데가 없고,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흠이나 돌도 다 쓸모없는 위치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씩 체험하면서 차원을 높여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흥겨웁게 웃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심부름하는 입장이고, 또 심부름하면서 넓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 문에 주인이 길에 나갔으면 나갔고, 들

어오라면 들어오면 되지 하고 생각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오늘 죽어도, 내일 죽 어도, 길게 살다 죽어도 모두 자기 주인이 할 탓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다투어 나갈 수 있고, 차원이 높아질 수 있 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됴므로써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극난한 문 제가 생겨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대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체를 놓아야 하는지

문 전생에 어떤 선근이 있어서인지 이제나마 스님이 제신 한마음선원 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유인의 길' 이란 책을 접하고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 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보이던 불법 이었는데 바로 제가 애타계 바라던 것이 그 속에 쉽게 이해되게끔 되어 있었습니 다. 금방이라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

“
나를 발견하기 위해
돌아난 도리를 알기 위해
돌아난 나뭇을 알기 위해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

다. 그런데 놓고 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 는 듯도 한데 생활의 자질구레한 모든 일 을 다 그렇게 항상 주인공자리에 놓고 관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거리들 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공부 가 잘 안 되네요.

답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놓는 것입니다. '나'를 형식시켰고, 수 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진화시킨, 그러나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 는 것도 너고, 말 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그 속에 서 나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거죠.

그렇게 말져 놓는다면 바로 자기 앉아 있는 도량을 자부치는 있는 것이죠. 자부 처부터 알아야 바로 마음속의 모든 의식 자체 생명들이 같이 화합해 주고, 내 국토 부터 다들 잘 알아야 바로 보살로 화해서

내 국토, 내 국토가 틀어 아님을 알 수 있 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 다.

그런데 거기다 화두를 또 잡고 끊어질 까봐 애를 쓰고들 그러죠. 일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잘나잘나 화해 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일체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틀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라 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라는 존 재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집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 지껏 살면서 고정되게 보신 것이 있습니 까? 들은 것이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

된 게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데 대로 뜻과 행과 말이 같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 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기 그건 무슨 연 고나 이거죠. 그러니 나라는 게 어딤은 가? 누구 만날 때 누가 만났다고 할 수 있 겠는가 할 수 없으니 부처는 없는 게 부처 라고 한 겁니다.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를 어떻게 발견하며 내가 익힌 습을 어떻게 녹일 수 있 겠습니까. 내가 생동력 있게 모든 생물들 과, 즉 사생과 더불어 우주대전세계를, 내 몸통이 집과 대전세계의 집이 틀어 아닌 길 알게 되는 도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를 일차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믿 고 다니는 자기를 말입니다.

둘째는 일체를 거기서 해 나가니까 믿 고 말져 놔라 하는 겁니다.

셋째, 거기서만이 아프면 의사가 돼 줄 거고, 즉 약사불이 된다 이거죠. 가난하면 관세음에 돼 줄 겁니다. 간략하 게 말한다면 한마음 안에서, 내 몸통이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나뉘니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생사에 뛰어들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진다 이겁니다. 부 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사에 뛰 어들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 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고 했 습니다.

그러니까 관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한군데서 들고나는 것이니 그 자리를 믿고 맡기라 는 겁니다. 공공로에 모든 것을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생산이 되어서 나가는 걸 알면서

도 생산된 걱정까지 하면서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종일 누가 입을 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입을 했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듯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부처가 있 고 모두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 습니까? 내가 나를 시자 부리듯이 부렸 지, 누가 부렸나 이겁니다. 그러니 그냥 순순해서 따라갈 뿐입니다. 모든 걸 거기 에다 맡기고 말입니다.

여말하게 수행하려면...

문 저는 이 밋고 화두를 겨울방학 수 련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스님께 받 아 몇 달째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고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도 화두를 끊어뜨렸다는 생각이 제 자신이 너무 한 심하고 근기가 부족하다는 자책으로 하

를 쓰느나는 겁니다. 또 좌선을 하되 내 안으로 관한다면 화두가 같이 들리지마 는,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참나에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축삭이 돌 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사립도 돌아가 고, 사람의 마음도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 는데 하루 여덟 시간을 앉았다 하더라도 단 5분 앉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못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좌선할 때에 화두를 들고 관하리니까 그것이 끊어질까봐 애

끊어졌다는 게 불을 자리가 어디 있고, 이 어졌다는 게 불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 거죠. 그대로 돌아간 건데, 끊어졌다는 생 각을 하기 이전에 그 생각이 순간 날 때에 툴니는 24시간이라는 게 없이 그대로 돌 아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 리에 순응하라. 그리고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어나. 맥박 뛰듯 바쁘게 지 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순응 안 하고 항상 '이게 밋고' 생



그림 · 최주현

를 쓰고 '그게 밋고?' 하고 걸로 도는 게 관하는 건 잘 하는데, 새 물이 들어오 면 현 물은 나가고 돌아가는 이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그냥 두고 쓴다면 썩은 물 을 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선지식들이 '위 로 눈을 뜨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보지도 말고, 코골을 내려다보고 아주 정연하게 관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냐? 바로 중도에서 중용으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보라는 소리죠. 그

각만 하다가 이게 잘못됐으니 저게 잘못 됐으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있 다면 몸통이 떨어지면 그 또한 떨어지 는데, 지금 의식 가지고 몸통이가 떨어져서 간다면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아무 데나 들어서 아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 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모습 벗기가 상 당 히 어려우니라.' 이렇게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이 세상에 생긴 게 그대로 화두고, 앉으나 서나 깨나, 일 하 나 통을 누나, 잠을 자나 참선 아닌 것이

나면 응답하듯이 아랫배가 시원해져요. 또 애써 집중하면 머리가 담배를 끊었을 때처럼 시원한 바람이 한바탕 불어 나가 요. 또 '나'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마음으로 이리저리 찾아다녀 보면 찾아다닐수록 점점 비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나'는 있기는 있는데 찾지 못하겠어요. 또 '찾아서 뭐 하려고?' 하 는 생각에 이제는 찾지는 않고 그곳에 대 고 '나의 본래모습을 보게 해 봐!' 라고 합 니다.

저는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관 이 맞는지요? 그 알 수 없는 공간하고, 이 몸하고, 나하고 다 합쳐서, 또는 그 알 수 없는 공간을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알고 관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요?

답 이리저리 많이도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첫째도 '나'를 발견하기 위 해서 죽어야 하고, 두 번째도 틀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틀어 아닌 도리에서 틀어 아닌 나뭇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명을 벗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의식 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성의 끈에, 인 과의 끈에 의해서 자주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째 는 주인공이라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중심을 깨어야만이 바위가 굴러가듯이 말입니 다. 차도 중심이 있으니까 바위가 굴러가 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 이 없으면 목석이죠.

그런데 또 가는 것만 알았지 오는 거를 모르니까, 오는 거와 가는 거를 한데 합류 화시켜서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은 중심을 세워서 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하 나가 아니라 포괄적입니다. 한마음 주인 공이라는 건 내면에서도 한마음이고, 내 면세계의 모든 세포 하나 하나의 생명들 도 '나' 아님이 없습니까. 외부에서도 모 든 것이 한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까 '한마음 주인공' 하고 세워야 그 끈을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잡고 실행 할 수 있고 그걸 잡고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수련하는 것은 말져 놓는 작업입니다. 속명통이 컴퓨터 라면 거기에 입력이 돼서 악업 선업이 자꾸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가 되 밀려 놓아 야만이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 니다. 지금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이래야만이 내 마음이 스스로 밝혀져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소 리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은 움직여지지 않고 능 력을 배출할 수 있는 나의 근본 자체 선 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영혼이라 는 것은 얼른 쉽게 말하자면 부 선장이죠. 부 선장이 위로는 선장을 믿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가라는 거죠. 그러니 까 위로는 선장을 쥐고 아래로는 중생의 팔을 쥐고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선장은 움직여지지 않 으면서도 맷돌 심봉을 굴리는데, 그 심봉이 구르지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힘을 배 출해서 맷돌을 돌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저것 분별하고, 사랑으로 생각해서 아는 거는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 니 나라는 존재를 아예 배 버리고 마음으로 죽는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입시 때문에 걱정돼

문 스님 말씀을 듣고 많은 용기와 힘 을 얻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고 3 수험생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남편 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승진 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진실되게 아무런 원망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믿을 하나로 의지하 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욕심이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아이 입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에 어떻게 관을 해 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8면으로 계속

중용으로 중심 잡고 똑바로 보세요

루를 마치곤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수행을 여말하게 이어 갈 수 있나요? 그 리고 어떻게 앉아야 좌선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답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입니 다. 그런데 그 화두마저도 공했다 했거늘 어찌 거기다가 또 화두를 받아 가지고 바로 먹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시대 에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 전자에는 모 르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머 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현재 물 리학이나 과학이나, 지리학이나 의학이 니, 천문학이나 이런 것을 알음알이로 알 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 는 겁니다.

남이 밥 한 그릇 준 것을 들고 '이 밋 고?' 하고 가지고 있는 다면 자기도 공했 고 그것도 공했거늘, 어찌 끊어질까봐 애

런데 그렇게 안 해요.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남의 소 리나 들는데, 석가세존께서 이 자리에 계 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몸통이를 믿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 르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물질은 보고 끄달리지 말고 부처님의 마음을 꿰어 보려면 내 마음부 터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선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 음들이 달라요. 하루종일 앉았다가도 저녁에 일어났을 때는 선이 끊어졌다고 합 니다. '오늘도 여말하지 않고 끊어졌네,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러니 언제 공부 를 하느냐.' 고 한탄들을 하거든요. 그래 나 는 그때 빙긋이 웃었죠. 왜? 시간과 공간 이 초월됐는데, 즉 말하자면 둥근 틀이거 워 아래 마주쳐서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이 화두를 타파 해 나와 남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마음 의 세계를 맛보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하나인지요?

문 제가 팔을 들리고 마음을 먹고 팔 을 들면 팔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고 스님의 가르침 을 나름대로 참고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팔이 움직이는 것은 팔의 신경과 근육이 작용하고, 이들은 뇌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 일 것 같아요. 이 뇌의 작용은 '나' 가 마음을 먹으면 작용이 되는데, 나와 뇌 사 이에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이 둘을 연 결시켜 주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 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알 수 없는 공간을 불성 혹은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다가 짐을 내려놓고 있는 데요, 내려놓고